

公務國外研修結果報告書

연 수 개 요

- 연수기간 : 2005. 3. 12 ~ 3. 19 (7박8일)
- 방 문 국 : 뉴질랜드, 호주
- 연 수 단 : 7명(의원5명, 공무원2명)

龜尾市議會

호주 · 뉴질랜드 연수 결과 보고서



호주 · 뉴질랜드 연수단 일행

☞ 이 연수결과 보고서는 2005년 호주 · 뉴질랜드 연수단 전체의원이
공동 작성 하였습니다.

목 차

I. 연수개요

1. 방 문 국
2. 연수목적
3. 연수기간
4. 보고서작성자(연수단)
5. 연수일정 및 주요 내용

II. 연수국 현황 및 주요방문지

1. 뉴질랜드
 - 로토루아
 - 오클랜드
2. 호 주
 - 시드니
 - 포트스테판

III. 연수성과

공무국외연수보고서

I. 연수개요

1. 방 문 국 : 뉴질랜드, 호주

2. 연수목적

-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호주·뉴질랜드의 도시행정 및 사회복지제도 등 우수사례를 직접 체험하여 전문성 함양
- 선진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치·문화·복지 등 운영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

3. 연수기간 : 2005. 3. 12 ~ 3. 19 (7박8일)

4. 보고서작성자(연수단)

연번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1	구미시의회	김택호 부의장	
2	의회운영위원회	임성수 위원장	
3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수 의원	
4	산업건설위원회	문영덕 의원	
5	〃	김익수 의원	
6	행정 7 급	지명구	
7	기능직	문수진	

5.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주요내용	비고
제1일 3. 12(토)	인 천	오클랜드	기내숙박	· 인천공항 출발	
제2일 3. 13(일)	오클랜드	로토루아	폴리네시아폴 아까와레와 민속촌 화산지대	· 관광자원 개발 및 운영 · 관리실태 ·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실태	
제3일 3. 14(월)		로토루아	아그로돔 자연생태공원 파라다이스벨리	· 관광지 운영실태 · 환경보전 및 관리 실태 · 공원개발 실태 견학	
제4일 3. 15(화)	로토루아	오클랜드	레드우드산림 욕장 사회복지시설 방문 에텐동산 오클랜드시까지	· 산림욕장 관리 및 운영실태 · 퀴엘리자베스 전문 요양원 운영실태 · 도시공원 조성실태 · 지하철 운영실태	
제5일 3. 16(수)	오클랜드	시드니	아쿠아리움 야생동물공원 블루마운틴	· 관광자원 개발사례 · 동물보호 실태 · 도시공원 관리실태	
제6, 7일 3. 17(목) 3. 18(금)		시드니	시드니시의회 포트스텝판 오페라하우스 컨벤션센터	· 의회운영현황 · 모래의 자원화현황 · 도시교통 체계조사 · 컨벤션센터 운영실태	
제8일 3. 19(토)	시드니	인 천	기내숙박		

II. 연수국 현황 및 주요방문지

1. 뉴질랜드

기 본 현 황



- 수 도 : 웰링턴
- 인 구 : 395만명
- 면 적 : 268,680km²
- 민 족 : 마우리족
- 언 어 : 영어
- 종 교 : 영국국교회, 장로교, 가톨릭교
- 화 폐 : 뉴질랜드달러(\$NZ)
(1\$=1.40568\$NZ)
- 1인당 GNP : 19,500\$

▣ 체류기간 : 2005. 3. 13 ~ 3. 15

▣ 방문도시 : 로토루아, 오클랜드

1) 역 사

○ 뉴질랜드에 최초로 건너온 사람은 모아헌터(모아를 사냥하는 사람)라고 불리는 폴리네시아계의 인종으로 8세기경 타히티방면에서 남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뒤 13~14세기에 마오리족의 대규모 이주가 있었고, 주로 따뜻한 북섬에서 살았다.

유럽인 최초로 이곳에 온 사람은 타스만이었고, 그 뒤 영국사람 쿡이 1769년 이래 수차 탐험을 하였다. 당초에는 포경(捕鯨)·바다표범을



<마오리 민속춤 하카>

잡는 기지로 이용되었으며, 1814년 영국인 선교사 S. 마스텐이 전도소를 세우고 마오리어(語)로 교화하였다.

39년 6월 15일에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뉴 사우스 웨일스령에 편입되고 영국 해군 W. 홉슨이 총독대리로 취임하였다. 다음해 40년 2월 6일, 마오리족의 추장과 사이에 와이탕기조약이 체결되고 통수권은 영국왕에게 이양되었다. 그 뒤 뉴사우스웨일스로부터 분리되어 영국 본국의 직할식민지가 되었다.

이는 당시 남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있었던 프랑스세력을 저지하는 의미도 있었다.

- 1907년에 자치령이 되어, 실질적인 독립을 얻었으나, 영국 본토와는 두터운 유대로 이어져 있었다.

35년 불안정한 보수정권이 노동당에게 패하고 그동안 사회입법이 착실히 정비되어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미군의 보급기지로써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에 따라 전후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또 영국의 상대적인 국력 쇠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여러 나라와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47년에는 영연방을 구성하는 자치령과 영국 본국이 서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확인한 웨스트민스터헌장의 채택으로 정식으로 독립 국가가 되었다.

2) 지리 · 지형 · 기후

가) 지 리

-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쪽으로 폭이 약 2,000km인 태즈먼해를 사이에 두고 있다.

주로 북섬(北島; 11만 4,690km²)과 남섬(南島; 15만 460km²)의 2개 섬으로 되어 있으며, 그밖에 스튜어트섬 · 채텀제도를 거느리고 있다.

면적 26만 8,680km². 인구 390만 8,037(2002). 대체로 남위 33~53°,

동경 162~173° 안에 있다.

관할 도서로 토켈라우제도 · 쿡제도(1965년 자치정부 발족) · 니우에섬(1974년 자치정부 발족)이 있다.

1907년 영국의 자치령이 되고 47년에 정식으로 독립하였다.

영연방(코먼웰스)가맹국이며 공용어는 영어이며, 수도는 웰링턴이다.

국명은 1642년 네덜란드 탐험가 A.J. 타스만이 Staten Landt(남국이라는 뜻)로 명명했으나, 뒤에 네덜란드의 한 지명을 따서 Nieuw Zeeland(새로운 젤란트라는 뜻)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또한 마오리족(族)은 아오테아로아(Aotearoa; 희고 긴 구름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이 나라는 폴리네시아문화권에 속하지만 19세기 중엽이래 영국으로부터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결과 백인의 비율이 90%를 차지하여 그밖의 폴리네시아도서와는 다른 발전을 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남반구에 있어서 백인주도(白人主導)의 나라로서 생활수준이 높은 완전복지국가가 되어 있다.

국기는 영연방가맹국임을 나타내는 유니언잭에다 남십자성을 나타내는 4개의 별을 배치한 것이다.

나) 지형 · 지질

- 국토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속하며 주섬인 북섬과 남섬이 남북으로 이어져 (감마)형태를 하고 있다. 지형은 산이 많고 화산도 많으며 척량산맥은 특히 높고 험준하다.

해발고도 200m 미만의 저지는 전체 섬 면적의 1/6에 지나지 않으며 평지가 적다.

개척이 진행된 200~300m의 구릉지 및 산록부가 2/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1,000m 이상의 고지 또는 산지이다.

남북 양섬의 척량산맥은 제3기(紀)에서 제4기의 홍적세에 걸친 카이코우라조산운동으로 오늘날의 윤곽이 완성되었다.

북도는 척량산맥이 동부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타우포화산대라고 하는 용결응회암(溶結凝灰岩)의 화산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루아페후화산(2,797m) · 응가우러호이화산(2,291m), 통가리로화산(1,969m)의

3개 활화산이 솟아있고, 온천관광지를 이루고 있다.

서쪽 끝에는 원뿔꼴의 에그몬트산(2,515m)이 솟아 있다.

남도에는 서쪽 연안에 가깝게 서던알프스가 북북동-남남서방향으로

뻗어 있고, 최고봉 쿡산(3,764m)을 비롯하여 3,000m급의 높은 산이 이어진다. 태즈먼과 폭스 등의 빙하, 와카티푸호 등의 수많은 빙하호를 비롯한 빙하지형이 있으며, 남서안에는 대규모 피오르드(협만)가 발달한다. 산맥 동부에는 이 나라 최대의 캔터베리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남부에는 오타고 고지가 이어져 있다.



<로토루아 간헐천>

다) 기 후

- 편서풍대에 위치하므로 북단부(北端部)의 아열대지역과 고산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섬 전체가 서안해양성의 온화한 기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연평균기온은 북섬의 오클랜드가 15.1℃, 남섬의 남단 인버카길리 9.8℃이며, 연교차도 대략 8~9℃로 한서(寒暑)의 차는 크지 않다. 연강수량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1,000~1,500mm이나, 서던알프스의 서사면(西斜面)은 2,000~6,000mm에 달한다. 이 때문에 광범한 지역에 걸쳐 빙하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서사면의 빙하는 밀생하는 온대우림 사이를 지나 해발고도 200m까지 하강하고 있다. 반대로 동쪽은 500mm 미만의 지역도 있으며 때때로 뾰족현상도 보여 타소크(벼과식물)의 초원이 되어 있다

3) 교통 · 도로

- 섬나라이므로 항공 · 해상교통이 중요하고 오클랜드 · 웰링턴 · 크라이스트처치에는 국제공항이 있고, 항만도시로서도 그 지위가 높다.

국내교통은 근거리에서는 도로교통이 주종을 이루며, 자동차는 2명에 1대꼴로 보급되어 있다.

장거리 여객수송에는 항공기가 이용되며, 항공망도 완비되어 있다.

철도연장은 4,273km로 화물수송이 주류를 이루나, 오클랜드-웰링턴 사이는 특급·침대열차편이 있다.



<뉴질랜드 외곽도로>

4) 사회·교육

가) 사회복지

- 가장 진보된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국민의 평등정신 발현의 결과이다.

노령연금법은 1898년에, 사회보장법은 1938년에 성립되었으며, 45년에는 최저임금제가 확립되어 이것이 사회복지정책추진의 기반이 되었다.

의료를 포함하여 사회보장비는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91년 4월부터 복지정책을

수정하여 가족수당폐지, 실업수당감액, 의료비인상 등을 실시하였다.



<요양원의 잔디볼링시설>

나) 교육

- 교육은 6~15세까지가 의무교육, 19세까지는 교육비 무료이며, 신체 장애자와 벽지의 어린이들에게는 통신교육제도가 있고,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5) 정 치

가) 국내정치

- 정체는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을 원수로 하는 입헌군주국이며 임기 5년의 총독이 여왕의 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으며, 헌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의회는 1951년까지는 영국을 본으로 한 의원제였으나 현재는 단원제이며, 1879년 이래 3년마다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1984년 95명의 의원 중 4명은 마오리족을 위해 확보되었다.

여성참정권은 1893년에 주어졌고, 피선거권은 1919년에 확립됐다.

오늘날 선거권은 18세 이상 남녀에게 주어져 있다.

1993년 11월 새 선거제를 국민투표로 확정, 직선의원 60명, 나머지 마오리족 5명, 비례대표 55명으로 모두 120명 의원으로 개편하였다.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실권은 내각이 총리에게 있으며, 노동당과 국민당의 양당제가 확립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노동당은 1984년 7월과 1987년 8월 총선에서 승리, 집권하였다가 1990년 10월과 1993년 11월 총선에서 국민당에게 패배,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1996년 총선에서는 국민당이 뉴질랜드제일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1999년 11월 총선결과 헬렌 클라크 노동당 당수가 이끄는 좌파연합이 승리해 9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며, 2002년 총선에서도 헬렌 클라크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승리,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나) 외 교

- 영연방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연방제국, 특히 같은 연방가맹국인 이웃나라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관계가 깊다.

국토의 지리적 위치가 남태평양이라는 점에서 안전보장을 위해 강대한 방위력을 가진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3국이 1952년에 군사동맹 앤저스(ANZUS)조약을 체결하였다.

또 아시아태평양협의회(ASPAC)에도 가입하여 태평양을 둘러싼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50년 콜롬보계획의 창설과 함께 가맹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개발 원조에 힘썼고, 63년에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 66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하여 아시아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 가맹한 오늘날, 농축산물시장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찾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에도 접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며,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통화, 상법, 세제상의 장벽을 완전 폐지해 2000년 초까지 양국경제의 완전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2000년 2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합의하였다.

다) 국 방

-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육·해·공군 3군이 있으며 최고사령관은 총독이다. 병력은 육군 4,400명, 해군 1,980명, 공군 2,800명(2000)이고 국방비는 8억 400만 달러(2000)이다. 1950년 이래 징병제가 시행되었으나 62년부터는 선발식 의무교련제로 바뀌었고, 70년 이래 지원제이다.

6) 경 제

가) 개 관

- 뉴질랜드 경제의 특색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민 1인당 무역액도 세계의 상위권에 들고 있다. 수출의 70%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산업이며 수입의 약 50%가 중화학공업제품이라는 데서 농업국형 또는 개발도상국형 무역구조이다. 산업별노동인구도 제1차 산업이 8%로서 다른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하여 높으며, 제3차 산업도 64%(1997)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비의동물 알카모>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은 복지국가로도 알려져 개발도상국형과 선진국형의 2가지 면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많은 것도 특색의 하나이며, 금융·운수·통신·동력·자원·관광 등 국영사업의 비율이 높다.

나) 자 원

- 석탄·사철(砂鐵)·수력·목재를 제외하고는 자원이 부족하다.

석탄의 확인 매장량은 2억 1,000만t, 연간생산량은 약 327만t이며 거의 국내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남섬의 북서부에는 불러·리프턴·그레이머스 등 주요 탄광이 집중되어 있으며 북섬의 티탄·마그네사이트 사철광상(鑛床)이 수출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풍부한 강수량과 산지·호소(湖沼)로 수력발전이 성하며, 이것으로 전력의 3/4을 충당하고 있다.

삼림은 국토의 1/4이며 개발 가능한 것은 10% 정도이다.

최근에는 식목효과가 나타나 라디아타송(松) 등이 수출되고 있다.

다) 농 · 목축업

- 농지면적은 2,122만ha에 이르고 있으나 이른바 경작지는 49만ha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뉴질랜드 농업은 <초지농업(草地農業)>이라고 하여 목초에의 의존도가 높고, 목축 및 낙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면양 4,739만 마리, 소 895만 마리, 돼지 40만 마리(1997)를 보유하며, 평균경영규모는 면양의 방목이 460ha,

면양·소맥의 혼합농업이 약 190ha,

낙농은 약 60ha이다. 농업종사자 1인당 경작지는 18ha(1996)이며, 농업의 노동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율은 10%에도 못미치나 농업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뉴질랜드 축산산업>

⇒ 소 1마리 사육에 필요한 토지가 1,000평이나 될 만큼 넓은 초지를 이용한 목축업으로 우리의 축산업과는 생산성과 가격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음.

라) 공 업

- 제2차 산업 노동자의 비율은 21%(1997)이며, 농업의 약 3배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하여 생산성은 높지 않다. 이는 식육가공·낙농품 등의 중소공장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알루미늄정련, 선강일관공장 등 중공업부문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알루미늄은 수출산업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공장의 70%가 북섬, 특히 오클랜드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마) 무역

- 수출 142억 달러, 수입 124억 달러(2001)로 2001년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 수출품목인 낙농품, 육류 등의 수출가격 상승과 자국화 저평가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으로 경제 호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 대부분이 식육·낙농품·양모가 차지하고 있으나 1976년 이후 알루미늄이 추가되었다. 수입품은 석유 외에 기계·수송기계(자동차) 등의 공업제품이다. 주요무역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일본·미국·영국이다.

7) 한국과의 관계

- 남한단독수교국으로 1949년 7월 한국을 승인하였으며 50년 6·25 중에는 육군과 해군 5,350명을 파병, 참전하였고 사상자는 119명에 달하였다. 62년 3월에는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71년 주한 뉴질랜드대사관과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개설되었다.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는 대뉴질랜드원자재 수입에 따라 한국이 계속 수입초과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뉴질랜드의 대한수출액은 7억 200만 달러였으며, 수입액은 2억 8,600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양국은 1967년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에 이어 78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오양·동원 등 다수의 수산업체에서 트롤선·오징어어선 등이 뉴질랜드에 진출, 조업 중이다. 그러나 자국어업육성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다소 난점이 있다. 합작투자에 있어서는 한·뉴필프합작회사가 설립되어 78년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그밖에 양국간에 맺은 주요협정으로는 국제운송소득면제협정(78.12), 이중과세방지협정(81.11), 항공협정(93.8), 사증면제협정(94.8), 취업관광사증협정(99.5) 등이 있다.

2000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참석 중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했다.

교민 1만 2710명, 체류자 4,295명(2001)이 있으며 재뉴질랜드교민회가 구성되어 있다.

로토루아

- 뉴질랜드 북섬의 중앙, 로토루아 호수와 타라웨라 산을 끼고 발달한 도시 로토루아는 뉴질랜드에서 11번째 가는 규모와 인구 66,000명의 그다지 크지 않은 도시이다.

뉴질랜드 전역을 뒤덮는 화산 지대 중 북섬의 중심인 이곳에서 관광객을 제일 처음 반기는 것은 유황 냄새로 이곳의 다른 이름인 “유황의 도시”를 떠올리게 한다.



<유황이 끓고 있는 머드풀>

- 하루에도 몇 번씩 솟구치는 간헐천과 뿌연 증기 가득한 온천 호수, 온천 폭포 등의 풍경들은 살아 있는 지구의 안쪽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 로토루아 지방은 와이카토 강을 시발로 하는 로토루아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호수는 14세기 중반 하와이키에서 카누를 타고 항해해 온 오호마랑이 부족의 후손인 이행아가 발견하였으며 '두번째 호수'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 로토루아 호수의 남쪽에는 시내가 형성되었고, 서쪽에는 뉴질랜드의 상징인 양떼들이 뛰노는 아그로돔(Agrodome)과 송어 양식이 활발한

파라다이스 밸리(Paradise Valley)가, 동쪽에는 진흙 열탕 지대인 티키테레, 남쪽에는 로토루아 관광을 이루는 마오리 마을과 간헐천이 있는 와카레와레와 타라웨라 산이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 현재 로토루아에는 약 5천명의 마오리인들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마오리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중심지이며, 온천과 간헐천, 머드풀과 지열로 끓어오르고 있다. 방문객들은 호텔에서 마오리족의 민속춤인 하카춤을 감상하며 그들의 독특한 식사인 항이식을 즐길 수 있다.



<마오리 민속공예>



<마오리 민속춤 하카>

<로토루아의 명소>

- 로토루아의 편안한 휴식터, 로토루아 호수



<로토루아 호수>

로토루아 호수는 로토루아 지역의 12개 호수 중에서 가장 큰 호수로서 옛날 로토루아 지역의 화산들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웅덩이가 파이고, 이곳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 진 것으로, 현재는 많은 관광객이 호수에서 유람을 즐기는 관광명소이다.

로토루아 호수(Lake Rotorua)의 이름은 14세기경 Iheuga라는 마오리가 Rotorua를 발견하고 이 호수를 로토루아 호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로토루아는 마오리말로 '2번째 호수'라는 뜻을 갖고 있다.

로토루아 호수는 로토루아 시가지의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이곳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처로써 사랑 받는 곳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Lakeland Queen" 즉, "호반의 여왕" 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토루아 호수를 유람하며 한가로이 햇빛을 즐기거나 호숫가를 거닐곤 한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모코이아(Mokoia)라고 불리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섬은 히네모아와 투타네카이의 전설적인 사랑으로 유명하다.

로토루아 호수 옆에는 가버먼트 가든(Government Garden)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공원 안에는 영 연방 노인들이 즐겨 하는 잔디밭 볼링(Lawn Bowling; 잔디밭 위에서 쇠로 된 공으로 하는 영국식 볼링)을 위한 장소와 장미정원 등이 있어 로토루아 시민들은 로토루아 호수 주변을 따라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가버먼트 가든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가버먼트 가든 전경>

○ 건강 온천수, 폴리네시아 스파(Polynesian Spa)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으로 로토루아를 들르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빠지지 않고 이곳을 찾는다.

다른 온천과 달리 지하에서 직접 분출되는 라듐과 프리스트가 첨가된 광천수를 이용하는데 이는 근육통이나 관절염에 좋은 효과가 있다.

위치상으로 로토루아 중심시내에서 차로 5분거리이며, 야외 온천탕에서는 로토루아 호수의 설퍼 만(Sulphur Bay on Lake Rotorua)과 하늘이 빛어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영업시간은 매일 6:30~22:00까지이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수영복을 필수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로토루아에서 온천을 즐기고 싶다면 수영복은 필수 한국에서 챙겨가는 것이 좋다.



<폴로네시안 스파>

사례조사 : 생태공원 파라다이스 밸리(Paradise Valley)

- **개 요** : 파라다이스 밸리(Paradise Valley)는 아그로돔, 와카레와레와, 지열발전소와 더불어 로토루아의 주요 관광지로 자연림이 빽빽히 가꾸진 공원안에서 온갖 종류의 송어를 관찰할 수 있으며 사슴, 갯커루, 원숭이, 사자등을 사육하는 동물원도 있다.



<자연속의 송어>

로토루아 시내에서 호수의 북서쪽으로 1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림속에 만들어져 있기에 우거진 관목과 각종 동물 등의 자연생태계를 보여주는 곳이다.

- **조사내용** :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활용한 자연생태공원으로 마음껏 노니는 송어와 80년된 뱀장어를 보고 자연을 아끼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뉴질랜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아그로돔(Agrodome)



<아그로돔의 양쇼>
몰이를 하는 시범을 선보인다.

거대한 목양 농장으로 푸른 들판에 노니는 수많은 양들을 구경할 수 있으며, 농장내부에 있는 공연시설에서 펼쳐지는 양털깎기 쇼를 볼 수 있다. 양털깎기 쇼는 하루에 세번 이루어지며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쇼가 끝난 후에 쇼의 시범을 보인 목양인부가 공연장 밖의 울타리안에서 목양견이 양

사례조사 : 레드우드(The Redwoods) 삼림욕장

- 개요 : 레드우드(The Redwoods)라 불리는 수목원은 로토루아 시내에서 5분 거리인 와까레와레와 숲을 일컫는다. 산책로는 비지터 센터(Visitor centre)에서 시작하며 루트가 6개로 나뉘어 있어 자신에게 알맞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산책로에서는 말이나 바이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보다 한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삼림욕장 입구 전경>

루트는 단거리(short walks)와 장거리(long walks), 레이크(lake walks)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루트는 그들만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루트는 단거리 레드우드 메모리얼 그로브 트랙(Redwood memorial grove track)과 와이타와(Waitawa walks)이다.



<삼림욕장의 산책로>

레드우드 메모리얼 트랙은 세계 2차 대전에서 희생된 뉴질랜드인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숲으로 60미터 높이의 수목이 우거진 숲속의 싱그러움을 즐길 수 있다. 와이타와는 휴식과 교육적으로 좋은 코스로 각종 뉴질랜드 수목과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레드우드 수목원>

- **조사내용** :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원형 보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쉽게 찾아볼수 있었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루트를 개발하였으며, 개울을 지날 때에는 천연 나무다리를 사용하되 나무를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다리사이에 나무가 자랄수 있는 공간을 설치한 점등이 특이함.

6개의 루터로 나뉘어 자신의 건강과 시간에 따라 루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 **우리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수종을 심고 가꾸고 개발하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국민 의식도 향상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이 필요함.**

뉴질랜드 사회복지시설(전문요양병원) 방문

- 방문일시 : 2005. 3. 14(월) 16:00
- 시설명 : 퀸 엘리자베스 전문요양원
- 위치 : 로토루아 호수 남쪽
- 설립연도 : 1942년
- 규모 : 75병상(온천장, 잔디볼링장 등)
- 종사자수 : 179명(점문의사 4, 간호사 25, 기타 150)
- 운영프로그램
 - 물리치료 요법
 - 유허 온천수 요법
 - 머드&목욕 요법
 - 마사지 요법
 - 운동 요법

○ 운영실태

- 개인과 2개의 공공단체가 각각 50%씩의 주식을 보유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
- 치료대상 : 류질랜드 및 외국인 등 모든 류머티즘, 관절염, 운동장애 환자 등을 전문으로 치료
- 현대의 치료방법과 전통적인 온천치료 병행
- 특징 :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자연주의적 치료

○ 방문결과

- 일반적인 물리치료 외에 유허온천수요법, 머드팩&목욕요법 마사지 요법, 운동요법 등 정부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대체요법을 이용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대체요법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
※ 찜질방, 황토방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학적으로 규명하여 치료에 도입할 필요성 있음



<퀸 엘리자베스 요양전문병원 전경>

오 클 랜 드

- 오클랜드는 전체 뉴질랜드 인구의 4분의 1이상인 약 12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이자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외국인, 내국인 할 것없이 뉴질랜드를 나가고 들어오고 할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 오클랜드 국제공항이기에 북섬의 관문역할을 하는 도시로 많은 해외 여행자들에게는 뉴질랜드의 첫인상으로 기억되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오클랜드 항만>

- 오클랜드는 1840년부터 수도가 웰링턴으로 옮겨가는 1865년까지 25년간 식민지 시대의 수도였는데 이때 '오클랜드(Auckland)'라는 도시명이 붙여지게 된다. '오클랜드(Auckland)' 이름의 유래는 25년간 식민지시대 당시 뉴질랜드의 총독이었던 윌리엄 홉슨(William Hobson)이 그가 존경하던 당시 인도 식민지의 총독이자 당대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오클랜드경(Lord Auckland 1784~1849)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 오클랜드의 고지대라 할 수 있는 에덴동산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 보면 멀리 와이테마타(Waitemata) 항구에서 반짝이는 바닷물결이 보이고 하우라키 만(Hauraki Gulf)에 늘어서 있는 작은 섬들의 모습도 들어오며, 녹지가 많은 도시풍경속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시민들이 사는 집들이 보인다.



<오클랜드 야경>

- 문화적으로 오클랜드는 전통적인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인들의 이주로 인한 유러피안 문화의 흡수, 그리고 아시아인들의 진출로 인한 아시아 문화의 유입 등으로 어느 정도 다문화적인 성격을 띠게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가지는 이런 여러가지 문화가 별다른 트러블(trouble)없이 혼합되어 우호적인 문화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 오클랜드는 바다에 인접해있으며 전세계에서 오고 나가는 상선, 크루즈선으로 항상 붐비는 도시이며 이 바다에서 즐기는 요트타기는 오클랜드 시민들의 최고 여가거리라 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오클랜드는 도시시민 1인당 요트갯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돛배의 도시(City of Sails)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요트의 항 오클랜드>

<오클랜드 명소>

○ 에텐동산



<에텐동산에서 본 오클랜드시가지>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서울의 남산과 같은 곳으로 오클랜드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 도시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5km 지점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가장 높은 해발 196m의 사화산으로 정상에 서면 시내와 아름다운항구위로 쪽 뻗은 다리인 하버브릿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잘 정돈된 나무와 잔디, 루피너스가 만발하여

언덕 정상에서 바라보는 도시 야경은 정말로 훌륭하다. 주위에는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슈퍼마켓과 한국인들의 주거지역이 있다. 오클랜드에는 50여 개가 넘는 사화산이 있는데 이 중 가장 유명하다.

○ 오클랜드 항만

오클랜드의 명물인 하버 브릿지와 바다에 떠 있는 요트를 볼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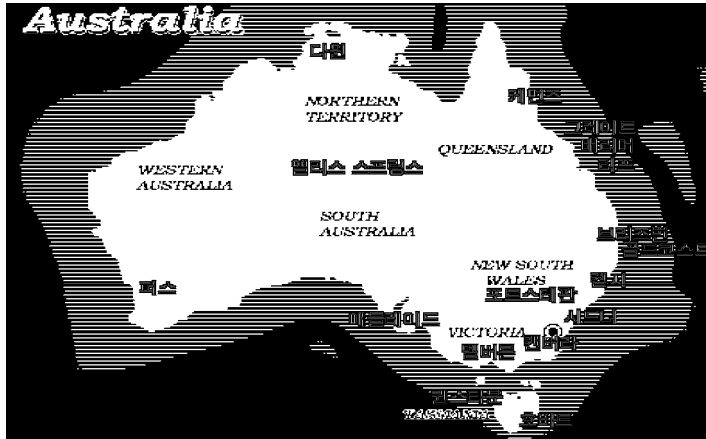


<오클랜드 항만>

가장 좋은 자리. 해질 무렵이면 석양과 함께 하버브릿지, 요트들이 멋진 실루엣을 만들어 낸다. 오클랜드는 요트가 많아 돛의 도시로 불릴 정도다. 특히나 주말이면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항구로 나와 장관을 이룬다.

2.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기 본 현 황



- 수 도 : 캔버라
- 인 구 : 2,023만명
- 면 적 : 7,686,300km²
- 민 족 : 앵글로색슨(80%),
- 언 어 : 영어
- 종 교 : 기독교,
- 화 폐 : 호주달러(\$AS)
(1\$=1.3039\$AS)
- 1인당 GNP : 25,458\$

▣ 체류기간 : 2005. 3. 15 ~ 3. 18

▣ 방문도시 : 시드니

1) 역 사

- 오스트레일리안 에보리진(Australian Aborigines)이라고 알려진 호주 원주민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문화적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들의 기원은 마지막 빙하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사 이전의 호주 원주민 역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인 채로 남아있지만, 7만여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사람들이 건너온 것으로 전해진다.
탄탄한 뼈 구조 때문에 '로버스트(Robust)'라고 불리는 첫 인류가 상륙하고, 2만년 뒤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에보리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사일(Gracile)'이 들어왔다.
- 유럽인들은 16세기, 호주 대륙에 상륙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 항해사, 네덜란드 탐험대, 모험심이 넘치는 영국인 침략자 윌리엄 댐파이어(William Dampier)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은 1770년 동해안 전체를 탐험했고 탐험 도중 보타니만(Botany Bay)에서 잠시 쉬어가기도 했다. 그는 케이프요크(Cape York)를 탐험하면서 이 곳을 영국령으로 선포했고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라고 명했다.

- 1779년 조셉 बैं크스(Joseph Banks; 쿡선장과 동행했던 자연학자)는, 뉴 사우스 웨일즈로 죄수를 옮겨와 넘쳐나는 죄수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1787년 아서 필립 선장(Captain Arthur Philip)의 진두 지휘아래 첫 번째 함대가 보타니만(Botany Bay)으로 출항했고 아서 필립 선장은 이 곳의 첫 번째 통치자가 되었다. 이 함대는 11척의 배와 750명의 남녀 죄수, 4개 중대 및 2년 치 보급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필립은 1788년 1월 26일 보타니만에 상륙했지만 지대와 물 등의 조건이 더 나은 시드니 코브(Sydney Cove)로 곧 이주했다.

-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뉴 사우스 웨일즈는 척박하고 거친 곳으로, 최소한 16년 동안은 굶주림의 위협과 싸워야 했다.

이 후 몇 십 년 동안, 자유 정착민들이 호주가 지닌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할 무렵, 1850년대에 금이 발견되었는데 이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거대한 이민 물결이 몰려들었고, 몇몇 광대한 금광의 발견으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식민 사회 구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 농장과 금광을 찾아, 새로운 곳을 마구잡이로 개척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에보리진은 그들의 영토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나야 했다.

-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은 다량의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호주의 농업, 광산 자원들이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었다.

1901년 1월 1일 독립 식민지 동맹이 생겨나면서 호주는 한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그러나 법적, 문화적으로 영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호주는 영국편으로 참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2차 대전 시,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호주를 보호해 주게 되어 영국과의
상하 관계는 변화를 맞게 되었다.

호주는 그 이후 미국을 따라 한국 전쟁(6.25사변) 및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이민물결이 대거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이
비 영국계였다.

이민자들은 호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문화에 생기를 불어 넣
었으며 그 비전을 넓혀주었다.

1980년 대 호주는 아시아계 해외 이주민 다수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베트남인이 많았다. 아시아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호주 측의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문제들로는,
공화제, 1993년 통과된 법령 Native Title Act의 광범위한 적용, 한나라당
(One Nation Party)이라는 인종차별 극우정당의 급작스런 부상 등이 있다.

- 불행한 것은, 수 많은 애보리진들이 여전히 비참한 환경에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2) 지리 및 기후

- 호주는 광활한 대륙으로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 인도네시아 및 파푸
아뉴기니 남쪽에 위치해 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나라인 이 곳은 동서 4,000km, 남북 3,200km로
뻗어 있고, 내륙 대부분은 거의 평평한 평지 및 불모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밀도가 극히 적은 나라다.

인구 대부분은, 협소하며 비옥한 동쪽 해안 평지와 동남쪽 해안을 따라
분포해 있다.

- 대륙 분수령인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Great Dividing Range)은 남북
으로 뻗어 동쪽 해안으로 내려가는데, 동쪽 평원은 이 산맥을 기준으로
건조한 오지 지역과 구별되고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 대보초)는 해안선에서

50-300km 정도 떨어져 있고, 길이는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에서 글래드스톤(Gladstone)으로 이어지는 2,000km에 달한다.

- 호주는 여러 종류의 동식물이 자생하는 축복 받은 나라다. 호주에서만 자라는 식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고무나무와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는데 그 종류가 7백여 가지나 된다. 그 외 식물로는 아카시아속 관목인 와틀(wattle), 뱅크셔, 와라라, 쇠뜨기, 페이퍼박, 티 트리 등이 있다. 호주 특유의 동물로는 호주를 대표하는 캥거루를 비롯해, 코알라, 에뮤, 오리너구리, 이키드나(바늘두더지), 포섬 등이 있다.



<호주의 야생동물 코알라>

여러 종류의 흥미로운 새도 있는데, 앵무새, 카커투, 쿠카바라 등이 그 것이다. 경계해야 할 동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거미(특히 등이 붉고 깔대기 모양의 거미줄을 가진 거미), 뱀(맹독성의 브라운, 타이거, 데쓰애더, 코퍼헤드, 붉은 배를 가진 블랙 종들)과 해수 또는 담수에 각각 서식하는 악어들이 있다. 또한 열대우림, 사막, 산맥, 해변 모래언덕 등이 나타나는 500여 곳의 국립공원이 전국에 걸쳐 있다.

- 호주의 계절은 유럽이나 북미와는 반대다. 12월은 초여름, 3월이 가을, 6월은 겨울, 9월은 봄에 해당한다. 계절 변화가 그리 뚜렷하지 않고, 산악 지대를 빼고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적이 별로 없다. 북쪽으로 갈수록 계절 변화는 더욱 희미해져 북쪽 끄트머리에 있는 다윈은 물론 기후대에 속하고 두 계절만 나타나는 데, 무더운 우기와 무더운 건기가 그것이다.
- 여름철은 남부에 있는 도시들로 여행객이 많이 몰리나, 뉘니뉘니해도 봄과 가을이 여행하기에는 최적기이다. 이 때 남부의 날씨는 온화하다. 북쪽에 있는 퀸즐랜드 주는 이 기간에도

여전히 무덥고 습도가 높은 편이나 수풀에는 곤충들이 덜 들끓는다.

3) 문 화

- 원주민에게서 유래된 것을 제외한다면 영국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오스트레일리아의 독자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발달해 왔다. 미국문화의 영향은 개척시대의 역마차와 현대의 자동차, 그리고 햄버거와 콘플레이크 등 생활문화의 물질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다.

제2차세계대전 후 영국적 요소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단순한 미국화로의 전환은 아니고, 이민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문화적 영향을 포함한 문화적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오스트레일리아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에는 문화·예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각 주도에는 상당한 규모와 수준을 자랑하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식물원·음악당 및 오케스트라 등이 있고, 중소도시에도 도서관과 스포츠시설 등이 있다.



<오페라하우스 전경>

4) 축제 및 행사

- 크리스마스는 장기 여름 휴가 기간으로, 12월-1월 무렵 호주 인구의 절반 정도는 휴가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가 되면 숙박시설은 거의 예약이 끝나 있다.

호주 국경일로는 첫 함대가 도착한 날을 기리는 Australia Day (1월 26일)와 1915년 호주 및 뉴질랜드 군 병력이 갈리폴리(Gallipoli)에 상륙한 것을 기념하는 Anzac Day (4월 25일)가 있다.

5) 정 치

- 형식상으로는 영국 여왕을 최고 통치권자로 인정하지만 말 그대로 형식에 불과하다. 대신 선거로 구성된 호주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국 여왕이 총독(Governor General)을 임명하고 대리자로서 총독은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연립 정당을 대표하는 수상의 권고로 각료들을 임명한다. 총독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관행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각료들의 조언에 따른다.

호주는 2001년 1월 1일 연방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오래된 연방의 역사를 자랑한다. 지방 분권이 발달해 연방정부아래 주정부와 같은 지방 정부가 힘의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 현재 여섯 개의 주와 두 개의 준주(準州)가 있다.

6) 경 제

- 금광의 발견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호주 경제의 밑바탕은 중금속등의 천연 매장자원에 의존하였다.
호주는 일찌감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으로 주요 생산 수출품목은 천연자원을 위주로한 1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여행인구가 늘고 호주의 자연경관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이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7) 교 육

- 원칙적으로 주정부 책임이며, 교육제도는 주에 따라 다르다.
초등학교 교육은 6~7년제, 중등학교 교육은 5~6년제로 합쳐서 12년간이며, 의무교육기간은 10년간이다. 19개 종합대학교와 47개 단과대학, 약 270개 기술교육기관이 있다.

8) 사회보장제도

- 1909년 노령연금 발족 이후 세계에서 가장 일찍 다종다양한 사회 보장·복지제도를 발달시켜 왔다. 그 중심은 정부 재원에 의한 무작출(無釀出)·직접지급방식에 의한 연금·급여이다.
그러나 개인소득세 부담도 그에 비례해서 많아 고복지·고부담사회이다.

75년 7월 발족한 의료비 무료화(국고 부담)제도는 재원난으로 즉시 실행이 어려워졌고, 76년 10월 각출제의 일반적 의료보험제도로 전환되었다.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사회보장·복지행정만이 아니라 정부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의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9) 우리나라와의 관계

- 1961년 10월 수교합의를 하고 각기 상주대사관을 설치했으며, 무역협정·문화협정·어업협정·핵협정 등을 맺었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임원을 파견했으며, 49년 8월 한국을 승인하였다.

또 6·25전쟁 중에는 2만 명의 병력이 참전했으며, 캔버라 전쟁기념관에는 한국기념관이 있다. 67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방한한 이후 상호 정상 방문으로 양국의 협력기반이 다져졌다. 70년 한국이 항구 준설공사를 맡은 뒤, 한국 회사들이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 2000년 대한수출 59억 5870만 달러, 대한수입 26억 624만 달러를 기록했다. 교민은 2000년 4만 48334명이며, 체류자는 1만 219명이다. 앞으로 한국과는 정치·외교적으로 한층 긴밀하게 될 전망이다, 경제면에서는 자원개발 참여의 제한과, 한국상품에 대한 덤핑제재 등으로 인한 마찰도 예상된다. 북한과는 24년만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재개하여 2002년 5월 캔버라에서 대사관을 개설하고 그해 6월 48억 원을 대북지원했다.

시 드 니

-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주도로 인구는 약 360만명 정도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로 남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항만으로 유명하며 19세기 초 유배지로 세워진 뒤 최초의 개척자들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요 무역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시드니 항 전경>

- 지금은 호주의 가장 거대한 대 도시권으로 1770년 제임스 쿡 선장이 이끄는 탐험대가 시드니 항만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1788년 1월 26일 보터니만으로부터 포트 잭슨에 들어온 총독 필립은 유형수 770명, 군인 250명을 데리고 이곳에서 최초의 식민지 건설을 개척하였다. 도시이름은 당시 영국의 관료였던 시드니경의 이름을 딴 것으로 천연의 양항이라는 점과 육상교통의 요지라는 사실도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다. 1842년 시제가 시행된 이후 1851년 시드니 근처의 배더스트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다.
- 시드니의 대도시권은 서쪽의 블루 산맥에서 동쪽의 태평양까지이며 북쪽의 호크스베리강에서 보터니 만의 남쪽까지 뻗어 있다. 호주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있을 정도의 최대 도시이기도 하다. 중생대의 사암층의 대지와 서쪽 내륙에는 이암질의 파랑상의 저지를 사이에 두고 해발고도 1000m 전후의 블루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이 대지의 계곡은 하류지역에서 익곡을 이루어 포트잭슨만, 보터니만 등을 이룬다. 포트잭슨만의 남안 일대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항의 항역이 되어있다. 이 항구에서는 호주 무역액의 4분의 1을 취급할 정도로 크다. 시드니 시는 이 항만을 둘러싸고 있는 낮은 구릉 위에 세워졌다.

- 시드니는 수상 스포츠와 위락시설 및 문화생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항만의 잔교 동남쪽에 세워진 오페라하우스는 극장,음악당을 모두 갖춘 곳으로 공연예술의 중심지이다.

<시드니의 관광명소>

○ 갯 팍

100M 높이로 깎아지는 수직 절벽이 장관인 곳이다.

예전에는 자살의 명소로 유명했다.

공원 한편에는 1857년 침몰한 영국 선박을 추모하는 닻이 세워져 있다.

122명의 선원가운데 단 한명을 제외한 전원이 수장되었는데, 더구나 운이 없었던 것은 겨우 두번째 항해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갯 팍>

○ 달링하버



<달링하버>

연중 시드니 축제가 계속되는 곳, 시내 중심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현대적인 항구이며 이름만큼 사랑스러운 곳이다. 낮의 분위기도 좋지만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의 모습은 또 다른 달링하버의 모습이다. 달링하버에는 아기자기한 레스토랑, 노천카페, 달링하버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드는 분수, 즉석 거리공연에서 금방이라도

객석이되는 계단들, 아이맥스 영화관등이 있어 여행자들이 빼놓지 않고 들르는 코스다.

○ 더들리 페이지



<더들리페이지에서본 시드니>

물탱크가 묻혀져 있는 언덕으로 이곳에 가면 시드니 항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다.

기념사진 찍는 장소로 아주 좋은 종이다.

○ 본다이 비치

시드니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휴양지로 시드니 중부에서 차로 약 30분정도 걸리고 1km의 거대한 백사장을 자랑한다. 넓은 백사장과 거친 파도가 조화를 이루어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곳으로 주말이면 늘 많은 인파로 붐빈다.



<본다이비치 해변>

본다이는 원주민어로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파도'라는 말에 걸맞게 서퍼들이 서핑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한다. 본다이 비치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캠벨 퍼레이드 근방에는 번화가가 형성되어 각종 편의 시설을 비롯하여 쇼핑센터, 커피숍,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다.

특히, 본다이 비치는 일명 '토폴리스'라 하여 남, 여 모두 하위만 걸쳐도 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본다이 비치 근방에는 타마라마 비치를 비롯하여 쿠지 비치, 브론테 비치등의 아담한 해변이 자리잡고 있어서 지나면서 경관을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블루 마운틴



<블루 마운틴 전경>

호주의 그랜드캐년이라 불리는 블루 마운틴(blue Mountains)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호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칼리잎이 강한 태양 빛에 반사되어 푸른 안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블루마운틴이라 불리며, 1000m 높이의 구릉이 이어지는 계곡과 폭포, 기암 등이 계절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장관을 이룬다.

블루 마운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은 '에코포인트'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만큼 유명한 곳이다. 에코포인트에서는 블루 마운틴의 상징인 '세자매 바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유래가 내려오는 이 바위는 원래는 일곱 자매였는데 오랜 침식작용으로 인해 지금은 세 개의 바위만이 남았다고 한다.

에코포인트에서 블루마운틴의 장관으로 눈이 시원해 졌다면, 이제 '시닉 레일웨이(Scenic Railway)'를 즐겨보자. 250m의 수직 절벽을 52도 각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놀이기구인 '시닉 레일웨이'는 과거에는 석탄을 운반하는 열차였지만 지금은 블루 마운틴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블루마운틴내 이동통로>

○ 시드니 수족관



<시드니수족관 전경>

거센 파도를 연상케 하는 시드니 수족관은 달링 하버에 위치하며 호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 시드니에 왔다면 이곳을 한번쯤 꼭 들려야 할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 서식하는 650여 종류의 1만 1000여 마리의 해양동물이 모두 모여있다. 투명한 유리벽 사이로 컬러풀한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사는 열대어를 비롯하여 악어까지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시드니 수족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수심 10m에 길이 145m의 수중터널이다. 바닷속 체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중터널은 바닷속 풍경의 신비를 맘껏 느낄수 있다. 사방이 투명 아크릴로 만든 터널을 따라 지나가면서 다양한 열대어와 영화에서나 볼듯한 3m 길이의 상어 무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물속에서 다이버가 상어들에게 먹이를 직접 주는 모습은 신기하기만 하다.



<수족관 내부 전경>

○ 호주 야생동물 공원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동물들에 관한 관심이 유난히 많은 도시중 하나이다. 그만큼 야생동물공원도 여러곳에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 '호주야생동물공원'과 '패더데일 야생 동물 공원'이다.



<호주 야생동물 캥거루>

호주 야생 동물 공원은 시드니 중심부에서 약 40km 떨어진 루티힐에 위치한 동물원이다. 1990년대 말에 개원한 곳으로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지만 호주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을 모두 만날 수 있다.

먼저 호주에서만 서식하는 캥거루를 비롯하며 왈라비, 에뮤와 같은 동물들은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울 안에서만 관람이 가능하고 이 외의 동물들은 직접적으로 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 남반구 최고의 테마파크인 '원더랜드' 안에 자리잡은 동물원으로 원더랜드 입장권을 구입하면 동물공원까지 관람할 수 있어서 맘껏 즐긴 후에 동물 공원을 가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캥거루>

○ 오페라하우스

시드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1959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1973년에 완성하였다. 14년에 걸친 긴 공사와 총 공사비 A\$ 1억 200만 달러를 들여 건설된 오페라하우스는 106만 5,000장의 타일을 요트모양으로 만든 지붕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건축물은 1957년 정부에서 개최하는 국제 공모전에서 32개국 232점의 경쟁을 물리치고 선발된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우촌의 디자인 작품이다.



<오페라하우스 전경>

처음에는 건축 구조의 결함으로 공사 시작이 불가능하였으나 1966년부터 호주 건축팀이 공사를 맡아 완성하였다. 내부는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4개의 커다란 홀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페라극장을 비롯하여 2,900명이 들어설 수 있는 콘서트홀이 있고, 544석의 드라마 극장, 288석의 스튜디오, 400석의 연극무대로 구성되어 있다.

○ 하버브릿지

하버브릿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로 총길이가 무려 1,149m 이다. 시드니 교통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1923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9년이라는 세월끝에 완성된 다리이다.

그 당시 북쪽의 교외 지역과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오직 페리 뿐이었고, 총공사비 2,000만 달러를 들여 매일 1,400여명의 인부들이 투입되었다. 하버브릿지가 시드니의 명물이 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시드니의 남과 북을 오가는 다리인 만큼 밀려드는 교통난을



<하버브릿지 전경>

해결하기 위해 바다 밑에 해저 터널을 뚫어 교통량을 감소했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하지 않았다. 초기 하버브릿지 건설비용은 영국에서 차관을 들여와 충당했으며 1932년 3월 개통 후부터는 차량 통행료를 받아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1988년 모든 빚을 청산했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받아 하버브릿지 유지보수비와 해저터널 공사비로 사용한다.

가장 높은 부분의 높이가 134m 인 거대한 아치형 다리로 시드니 만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보도 위를 걷다보면 오페라 하우스와 하얀요트가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 MRS맥쿼리체어



<맥쿼리어 포인트에서 본 오페라하우스>

미세스 맥쿼리체어(Mrs. Macquarie's Point의 애칭)는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의 하모니를 가장 좋은 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는 곳으로 시드니 여행사진의 단골 출연장소이다.

그림엽서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시드니

시민들은 조깅과 산책을 즐기고, 시드니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배경을 담느라 바쁜 풍경을 연출한다.

호주군의 선착장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는 영국으로 출장 나간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자리에 만들어진 미세스 맥쿼리체어를 만날 수 있다.

사례조사 : 시드니컨벤션센터 및 시의회 청사

○ 조사내용

<시드니컨벤션센터>

해변가에 위치한 시드니컨벤션센터는 세계적인 각종회의는 물론 전시회로 1년내내 외국의 귀빈들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빠어난 주변 경치와 잘 갖추어진 호텔 등 부러움이 절로 생긴다.

우리시의 주변에 있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와는 격이 다름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시에도 이런 컨벤션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작은 도시에서 유지할 재원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실감케 한다.

차후 여건이 갖추어 지면 검토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컨벤션센터 앞에서>



<시드니컨벤션센터 전경>

<시드니시의회>



<시드니 시의회 전경>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시의회(Town Hall) 건물은 전체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건물 왼쪽에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놓았다.

특이한 점은 주차장이 없이 바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대중교통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한다고 하니 이들의 근면성과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

하지 않으려는 정치인들의 봉사정신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비교가 되면서, 겉모양을 중시하지 않고 내면을 중시하는 호주인들의 생활 습성이 그대로 보여 주었다.

포트스테판

- 시드니나 골드코스트가 복합적인 다민족문화를 형성한 대형도시라면, 그에 비해 포트스테판은 한적한 시골로서 전통적인 호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벨슨베이의 돌핀크루즈>

시드니에서 북쪽으로 200여 km 떨어져 있으며 차량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현재 시드니 시민들에게도 각광을 받고 있는 휴양지이며 시드니를 방문하는 여행객 대부분이 한번쯤 들려가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해변의 길이가 약 40km에 이르는 환상적인 황금 해변과 호주 내륙 지방으로 가야만 볼 수 있는 사막지대가 해변 지역과 어울려 있어 신비롭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다.

포트스테판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타고난 자연경관이 빼어나다는 것이다. 사막과 푸른 남태평양이 펼쳐진 비치와 공존하는 스타튼 비치와 80여마리의 야생 돌고래들이 서식하고 있는 넬슨베이 근해등, 지금껏 호주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도시가 바로 이 포트스테판이다.



<스타튼비치 전경>

포트스테판은 처음엔 원주민 부족의 하나인 오리미족이 살고있었으나 1770년경 제임스 쿡 선장의 보좌관이었던 필립스테판을 기념하여 이름지어졌다.



<사막을 관광자원화 한 모래썰매 타기>

사례조사 : 선진도시의 교통체계

○ 조사내용

- 도심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고 사거리마다 교통섬을 설치하여 오른쪽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진행토록 운행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법규를 잘 지키고 있어 혼잡은 없음.



<뉴질랜드 도로의 교통섬>

☞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양보와 질서의식이 필요함

- 모든 영업용 차량운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토록 함과 동시에 차량에 운행기록기(일명 타코메타기)를 장착하여 운행후 검열을 받아 속도위반사항 등을 체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음.



<뉴질랜드 도로>

☞ 우리시에서도 모든 영업용 차량에 대한 타코메타기 설치 검토 필요.

- 시드니의 도심에는 모노레일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도심의 교통혼잡 해결은 물론 좁은 도로의 효과적인 이용과 지하철역사이의 짧은 구간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의 모노레일>

하지만 건물 2~3층 높이의 운행으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모든 경유차량에 대하여는 배기가스 연통을 차량뒤편에 차량의 높이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여 경유연소에 따른 배출 가스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경유차량의 배기통>

- ☞ 우리나라도 모든 경유차량에 대하여 차량 배기통을 하늘로 설치하여 차량배기가스로 인하여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함.

Ⅲ. 연수성과

-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며 글로벌시대로서, 제한된 지역에서 외부와의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발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보다 정치·경제, 문화·복지 등 다방면에서 앞선 호주·뉴질랜드의 연수를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운영과 사회복지제도, 도시기반시설, 문화재 관리 등 보다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연수에 임하였다.
- 그러나 한정된 짧은 일정과 언어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보다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연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호주·뉴질랜드의 사례조사와, 복지시설 방문, 도시·문화, 사회복지 등 현장 체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 향후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호주·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자연환경의 변화와 특성에 따라 도시의 발전과 산업발달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광활한 토지를 바탕으로 높지 않은 산림을 개발한 초지 조성으로 농·축산업이 발달하였고, 또한 천연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목재를 이용한 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빼어난 경관으로 관광산업 역시 발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호주·뉴질랜드가 역사는 짧지만 도시가 먼 세대를 내다본 완벽한 계획과 시설,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보존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변이 매우 깨끗하고 도심 곳곳을 공원화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었다.
- 호주·뉴질랜드의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 국가예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있어 세계적인 복지선진국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또한, 인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도와 정책이 발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대체적으로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었으며 항상 삶의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예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구호는 “엄마 뱃속에서 무덤까지”로 변하였다는 그들의 말처럼 의료보험, 무료교육, 실업자구제, 노후생활보장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회보장제도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복지제도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탈세가 가능한 현금을 쓰지 않고 탈세를 할 수 없도록 체크카드(우리나라의 가계수표)를 사용하고 있어 모든 수입과 지출이 바로 은행을 통하여 세무서로 통보되어 세금(40%정도)을 공제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우리와는 달리 국방비의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복지제도가 실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우리나라의 30%밖에 되지 않지만 여유를 갖고 풍족하게 살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녀와 노후걱정이 없어 재산을 축적하기보다는 적은 임금이지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호주·뉴질랜드의 지방자치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것으로 그 나라의 사회여건과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느꼈고, 지방의회의 운영실태와 행정은 역사와 배경이 달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웠지만 대체로 의회는 광역, 기초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집행부의 시장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보다 간접선출을하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끝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역사와 유물의 존귀함을 피부로 느꼈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전통 및 유물의 보존은 대가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와 국민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국민의 주인의식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유물은 우리들 그리고 후손들이 누려야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산이고 유산이 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 내 것이라는 의식으로 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강산이 다시금 “금수강산”으로 되돌아오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관광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나라가 될 날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고 가는 항공기 안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바쁜 일정으로 많은 도시를 접하다 보니 깊이가 없는 연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선진 호주·뉴질랜드 국민들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과 친절함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